

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| 발표자 | 박미려(한밭대학교)* / 양영석(한밭대학교)** / 김명숙(한밭대학교)***

[요약]

본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.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‘청년패널조사(2015)’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. 본 연구의 표본은 비임금 근로자 중 학력은 전문대졸이상 이며,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한 창업을 한 청년 18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,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. 또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2.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본 연구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창업자의 역량으로 창업준비역량, 기업가역량, 관리역량 등 결정요인을 도출하고, 이들 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,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 대비 일수준이 낮을수록,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수록, 직무만족이 높을수록, 창업총자본금이 많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과정, park_mr@hanmail.net
 **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교수, ytony@hanbat.ac.kr
 ***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전담교수, kmsjws@hanbat.ac.kr